

파행끝 예산 284조5천억 통과

정부안보다 7천억 증액...SOC·남북기금은 감액 여 "경제위기 극복 중점"...야 "예산안 폭거" 비난

파행을 거듭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는 결국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증액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경우 정부 원안 217조6천억원에서 1천억원 순삭 감원 217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교부금 1조1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방재정지

원 8천억원, 금융시장 안정지원 1조5천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9천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8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증가해 2조2천억원 순감하는 것으로 잡았다.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제 발행규모는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등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 "12·12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당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에 끝내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질

차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부수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차수를 변경, 13일 정오가 다 돼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지표의 저점 행진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회복세를 유도할 수 있는 예산을 요소요소에 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칼질'이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은 거의 없었다. 건설정기를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한나라당이 받쳐준 것이다.

동시에 유동성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천429억원을 증액한 것.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4천억원 늘렸으며, 은행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를 4천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부, 예산 집행 속도 더 빨라진다

李 대통령, 확대경제대책회의 주재 신속한 집행 지시 경기부양 '화급'... 공공사업비 투입 앞당겨

정부가 내년 예산의 일부를 올해 연말에 앞당겨 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정 집행을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작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돼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이미 시행하기로 한 사업들은 미루지 말고 집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 착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미리 배정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등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공공사업비는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산업단지 도로 건설 등을 위해 마련한 추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4조6천억원 원이다. 정부는 이중 90% 가량을 지방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 착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새해 예산안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부양이나 재정 악화나

국회, 일부 우려속 사상 최대 규모 감세안 처리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그 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수를 복돋을 경기부양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감세까지 키우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 감세=당초 감세안의 규모는 2009년 기준 10조3천억원. 하지만 지난달 3일 경제난국 극복대책으로 세제지원 3조원이 추가됐고 국회에서 현재 결정에 따른 증부세 감면과 국회에서 저소득층

을 겨냥한 추가 감세 등 2조3천억원이 더해졌다. 이를 합하면 내년에만 15조6천억원 규모가 된다. 이미 고유가 대책에 따라 올해에 세제지원으로 4조4천억원이 풀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0조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여권은 이처럼 세 부담이 줄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 부담 감소가 바로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경기 부양효과가 적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정 악화=내년 국제발행 규모는 당초 수 준인 7조3천억원으로 잡았지만

수정 예산안에서 17조6천억원으로 늘었고 국회에서 추가로 2조1천억원 증가, 19조7천억원까지 커졌다.

국가재무는 GDP 대비 34%대인 35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14.3%에서 내년에는 15%에 육박하며 재정수지는 GDP 대비 -2.1%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애초 수정 예산안에서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한국은행은 이번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내년에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포항 예산 '언터처블'

여야, 예산 심사 파행 뇌관 감액 없이 원안 통과

여·야간 예산 심사 파행의 뇌관이 됐던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포항 관련 예산'은 지난 13일 국회의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의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4대강 정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7천910억원) ▲하천재해예방(4천680억원) ▲갑천정비(3천878억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를 예방하고 지방건설 및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 아래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증액 분위기에 편승해 슬그머니 대운하를 하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하며 대목 삭감을 촉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지역의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만 이뤄졌다.

경북 포항 SOC 예산의 작년 대비 증가는 약 95%로 세부 내역별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건설(855억원)과 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657억원), 포항~울산 복선전철화(600억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530억원 등 정부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모두 합쳐 4천370여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비(-4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화(-120억원), 대구~포항 고속도로진입로(-7억5천만원) 등 모두 167억5천만원이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net

에듀뷰넷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 문의: 광주 (대)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기본서 첫 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재직자반은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화정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작강! 주책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첫진도 (기본서 이론) 개강 1월 2일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

www.scukorea.com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해 교세관법검정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09년 시험안내
● 시험일차: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 시험
● 채용인원: 국가직 3,200명, 지방직 총4,242명 모집
● 응시료 908, 전기 685, 전납 303, 광주 119, 전복 206원

개강 12월15일(주,아)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 6개월: 90만원 (교재17만원포함)
● 주·야간반+기초(美·圖)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www.mdgosl.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